

[종합·해설]

■ 한·미 FTA 2차 본협상 팽팽한 첫날

韓 “농산물-섬유 일괄타결을” 美 “쌀시장 예외 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첫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상품 양허안(개방허용)과 서비스·투자 유보안(개방불가) 교섭에 앞서 ‘양허단계’를 먼저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협상 도중인 이날 낮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허안 교섭을 먼저 하라’ 했으나 양허안의 틀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양허의 틀을 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양허단계를 5단계로 최대한 늘리자는 입장이나 미국은 최대 4단계를 넘을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쌀 시장도 개방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 개방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측 비교우위 분야인 상품을 양국의 취약고리인 농산물 및 섬유와 한데 묶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또 미국이 공방·항만 등 대규모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조달부분의 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규모 관급사업인 학교급식에 대해선 ‘최소년 보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해 예외조항을 두고, 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되더라도 중소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호조항을 넣을 방침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자동차 8% 관세 철폐 ▲인터넷 교육서비스 개방 ▲약품 시장 개방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韓 “양허 5단계” 요구에 美 “4단계 못넘어” 상품·정부조달 양허안 놓고 타결 시도 예상



10일 오전 서울 잠정동 신라호텔에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협상에서 회의를 시작되 기전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양국측은 협상에서 ‘양허의 틀’ 합의에도 ▲상품 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개방불가) ▲정부조달 양허안 등을 놓고 밀고당기기식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 정부 부처와 국제연구기관에서 선발된 협

상단 270여명이, 미국측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16개 부처 80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농민·시민 단체 회원 300여명은 신라호텔 주변에서 시국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한미 FTA 협상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親朴이나 親李나

(박근혜) (이명박)

한나라당 오늘 전대 새 대표 선출 당권주자들 수도권 막판 표심잡기

한나라당 당권주자들은 대표 경선 전당대회 하루 앞둔 10일 늦게까지 막판 표심 잡기에 몰두했다.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오 강제섭 후보를 비롯한 후보 8명은 선거인단이 가장 많아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과 취약·전략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대표경선 당일 연설문을 가다듬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재오 후보는 강세지역으로 자처하는 수도권에서 ‘대세 굳히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서민풍요 대표’로 당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설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섭 후보는 이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수도권 충청권원의 당원협의회장들을 집중 접촉했다. 강 후보는 정체성을 지키고 당내

분열·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연설문에 담을 계획이다.

두 후보는 그러나 전날 ‘대선주자 대리전’ 공방으로 날카롭게 대립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공약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대리전 공방이 확산되면 자신들이 당에 모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소장·중도개혁파 연합체인 미래모임의 권영세 후보는 수도권 출신 미래모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 지역을 집중공략했다.

정형근이규택 후보는 수도권과 경기도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율 호소하며 당 개혁 및 대선 승리를 위한 청사진을 담은 연설문 구상에 집중했고, 강창희 후보는 충청권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표단속에 주력하면서 ‘일찍이 지키는 인물’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 연설문을 준비했다.

‘조직’없이 뛰고 있는 전여욱 후보는 사실 없이 당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 연설문 작성에 공을 들였고, 이명박 후보도 국경정체성 수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문 준비에 정성을 쏟았다.

이날 격전은 ‘후진’ 상태에 들어갔지만, 선거 막판에 불거진 ‘대선주자 대리전’ 논란은 전대 이후에도 큰 후유증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오 후보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표측 인사들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나 후보를 조직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보고 강제섭 후보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친박(親박·친 박근혜)-친 이(親李·친 이명박)’ 대리전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시장의 개입’에 대해 ‘이렇게 처리된 전대에서 별한 당 대표가 과연 대선주자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후임 대표는 당 노선이나 공약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불안하다”라며 이 후보에 대한 불신감마저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기자 tuim@kwangju.co.kr

목포시의회 의장 박병섭씨 순천시의회 의장 박동수씨 장흥군의회 의장 김현수씨 강진군의회 의장 김태정씨 신안군의회 의장 이재환씨



박병섭 의장 박동수 의장 김현수 의장 김태정 의장 이재환 의장

목포·순천시의회와 장흥·강진·신안군의회는 10일 임시회를 열어 차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4선의 박병섭(46·민주) 의원이, 부의장에는 3선의 배종범(47·무소속) 의원이 선출됐다.

순천시의회 의장에는 3선의 박동

수(54·민주) 의원이, 부의장에는 정상윤(59·민주) 의원이 각각 뽑혔다.

장흥군의회 의장에는 3선의 김현수(53·민주) 의원이, 부의장에는 초선 비례대표인 김화자(여·50) 의원이 당선됐다.

강진군의회 의장에는 2선의 김태정(55·민주)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

영수 의원(56·우리)이 선출됐다. 신안군의회 의장에는 3선의 이재환(61·민주) 의원이, 부의장에는 역시 3선의 김동근(53·민주) 의원이 당선됐다.

목포·김영춘·순천·김진수·장흥·김용기·강진·이병철·신안·조완남 기자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24시간 접수, 24시간 상담. 전화: 062-227-9600, 팩스: 227-9500.

제 권 판 결. 사 전 2006년 7월 28일. 신원인 안용규. 2006년 7월 1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세창.

제 권 판 결. 사 전 2006년 7월 4일. 신원인 윤이식. 2006년 7월 1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세창.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허암옥(050804-2580312)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언에 대한 공고. 2006년 7월 11일. 양규호(☎ 652-5136).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한익(이하 "갑")은 2006년 7월 7일 기한으로 주식회사 "갑"을 합병하는 합병절차에 따라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각 회사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 게시일 이후 2006년 8월 14일까지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 2006년 7월 11일. "갑" 주식회사 후원.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887-1 대표이사 양진석.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한익(이하 "갑")은 2006년 7월 7일 기한으로 주식회사 "갑"을 합병하는 합병절차에 따라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각 회사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 게시일 이후 2006년 8월 14일까지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 2006년 7월 11일. "갑" 주식회사 후원.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887-1 대표이사 양진석.

전문건설업양도양수신청공고. 2006년 7월 11일. 백광기(주). 1. 양도·양수 대상의 종류: 기계설비(양도·양수) 12-06, 23-06, 24-06, 25-06, 26-06, 27-06, 28-06, 29-06, 30-06, 31-06, 32-06, 33-06, 34-06, 35-06, 36-06, 37-06, 38-06, 39-06, 40-06, 41-06, 42-06, 43-06, 44-06, 45-06, 46-06, 47-06, 48-06, 49-06, 50-06, 51-06, 52-06, 53-06, 54-06, 55-06, 56-06, 57-06, 58-06, 59-06, 60-06, 61-06, 62-06, 63-06, 64-06, 65-06, 66-06, 67-06, 68-06, 69-06, 70-06, 71-06, 72-06, 73-06, 74-06, 75-06, 76-06, 77-06, 78-06, 79-06, 80-06, 81-06, 82-06, 83-06, 84-06, 85-06, 86-06, 87-06, 88-06, 89-06, 90-06, 91-06, 92-06, 93-06, 94-06, 95-06, 96-06, 97-06, 98-06, 99-06, 100-06.

대주그룹 전문직 초빙. 대주그룹이 미래를 함께 할 역량 있는 인재들 초빙 합니다. 대주그룹은 건설, 조선, 금융, 제조, 언론, 방송, 리서브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그룹입니다. 초빙부문 및 지원자격. 2006년 7월 22일 18:00 도착분에 한함.

POSCO 광양제철소 근무복류 공급업체 공개모집. 1. 참가자격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로 제한). 2. 시찰명절 참석서 구비서류. 3. 시찰명절 일정. 4. 상세문의 사항. POSCO 광양제철소 TEL 061-790-2406 / 061-790-2670

분양대행전문회사. 분양대행 전문-분양이 안되십니까? *아파트/상가/빌딩/전원주택/기타부동산관리. 부동산개입 관리-토지개발을 준비하십시오. 부동산투자 상담-투자유망곳을 찾고 계십니까? 광주 전남 공인중개사 협력제구성. 분양! 청약과 상의하시면 깊이 있습니다. (주)청담 D & C 062)382-4984 상무주세정아울렛. 청담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전화:062)381-0049

산영안내. 광주토산산업의 대안. 광주·양파리 7월 15일(수) 18시 상주목, (681)1000. 광주·양파리 7월 15일(수) 18시 상주목, (681)1000. 광주·양파리 7월 15일(수) 18시 상주목, (681)1000. 광주·양파리 7월 15일(수) 18시 상주목, (681)1000.